



중보기도의 동역자님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롬4:25)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선교에 동참하시는 동역자님께 티후아나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1. GP-USA 선교사 공동체훈련.

4월 7일~18일까지 GP선교사로 허입 혹은 파송을 받은 3가정의 공동체 훈련이 저희 사역지인 벤엘선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티후아나에서 시작하는 공동체훈련을 위해, 2주간 동안 선교관 2층에 급하게 방 3개를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강의를 위해 미주 이사와 선교사 팀[백운영, 조용중/최경련, 주인석, 이영찬/이옥자, 강영훈]이 강의를 위해 미국국경을 넘어 방문해 주셨고, 티후아나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팀[박기훈/김혜원, 루이스/아나, 가디엘라, 박영완/정기영]을 통해 강의와 사역지 방문을 했습니다.



- 짧은 훈련기간동안 다양한 주제강의와 사역현장방문, 워크샵과 과제물을 준비하며 쉴 틈 없는 훈련시간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 ✦ 초기선교사들이 훈련을 통해 사역현장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과, 창의적 선교전략을 가지고 협력하여 현지 지도력을 세우는 일에 유익한 훈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티후아나 벤엘 선교교회 사역.

과거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며 종교적으로 카톨릭 문화권을 가진 중·남미 국가들은 종려 주일부터 부활절까지를 가리켜 Semana Santa - “거룩한 한 주간”이라 부릅니다.

티후아나 “벤엘선교교회”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훈련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적용하는 말씀 묵상을 실천하였습니다. 종려주일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기; 월요일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육신적 생각, 행동, 습관 버리기; 화요일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위해 성경읽기, 제자도 배우기, 전도하는 습관을 실천하기; 수요일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기: 목요일은 “이웃사랑 실천과 기도의 삶을 실천하기: 금요일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에 결단하기. 토요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기. 부활주일은 부활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기.
이를 통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며,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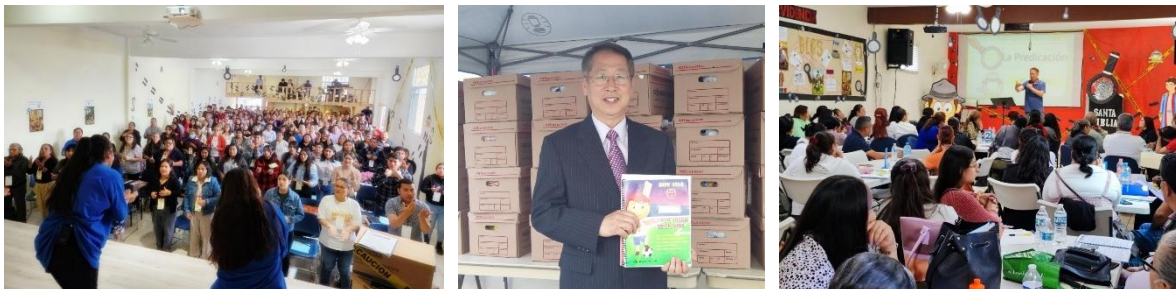
또한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위해, 수요일은 시립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빵과 커피를 나누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위로하였고, 목요일은 온종일 말씀 묵상과 금식하며 중보기도하기, 금요일은 철야기도회로 모여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며 사명과 헌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였고, 부활주일은 전체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부서별 발표회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 티후아나 베엘선교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 중에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2025년도 VBS 교사 강습회 준비.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50개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초청하여 5월 30일(토) 선한목자 국제신학교와 베엘선교센터 두 곳에서 2025년도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찬양과 율동, 성경공부와 행정, 크레프트, 게임, 실내장식, 발표회 등의 강의를 통해 VBS 교사강습회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공간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1회에 50개의 교회가 참석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의 도시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교사 강습회 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성경학교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역을 위한 [VBS 후원 박스]를 만들어 선물하고 있습니다.

✚ 헌신된 교사들을 세우는 강습회가 되도록, 그리고 50개 교회에 \$50불[VBS후원박스]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와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4.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사역.

“멕시코 선한목자 국제신학교”는 현재 2개의 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사역중인 목회자와 장래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반 신학과” 26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사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목회자 사모와 어린이 사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학과에 3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신학교 시작부터 자립을 목표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학교 후원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68:19)

멕시코 티후아나 시에서 박영완, 정기영선교사 드림

Timoteo YW PARK



“예수 부활 내 부활!”